

# 월드뉴스(국내)

## News Point

### 데이콤(선리안)

#### 무선데이터통신, 국내 첫시범 서비스

- 8월부터 서울, 대전 등 일부지역 대상
- '95년 하반기부터 상용서비스 계획

유선통신망이 아닌 무선을 이용, 이동중에도 증권전산시세정보 등 각종 정보(DB)검색, 신용카드 거래 및 조회와 컴퓨터 통신은 물론 팩시밀리 까지 주고 받을 수 있는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올 8월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주)데이콤(사장 : 申允植)은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상용화 되기 시작한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작년 7월부터 추진해 온 패킷전송방식의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개발에 성공 8월부터 오는 '95년 2월까지 서울과 대전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체신부로 부터 무선데이터통신 실험국 운영에 필요한 8백MHz대의 송, 수신용 주파수 2개 채널(810MHz, 855MHz)에 대한 할당을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콤은 작년 초부터 총 4억원을 들여 용산 본사와 대덕 종합연구소 등 2곳에 각각 실험국을 건설중이며 이 공사가 끝나는대로 8월부터 용산을 중심으로 시청, 여의도, 서초동, 신촌에 이르는 반경 3~4km 이내의 서울 지역과 대덕연구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데이콤이 최근 개발한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은 X.25 프로토콜을 이용 자사의 공중컴퓨터전용통신망은 DNS(DACOM-NET Service)와 무선데이터망을 서로 접속, 호스트컴퓨터와 무선데이

터망 교환국까지는 56/64Kbps급 고속전용회선으로 기지국에서 단말기까지는 무선으로 데이터를 패킷단위(1 Packet=1,024bit, 영문 128자, 한글 64자)로 분할 송수신하는 패킷전송방식이다.

한편 데이콤은 시범서비스가 끝나는 대로 오는 '98년말까지 모두 1백여억원을 들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4개도시에 무선데이터통신용 교환기를 설치하는 한편 전국 주요지역에 모두 45개소의 기지국을 건설할 방침이다.

#### 글로벌통신망 'Infonet서비스', 최고 47%까지 요금인하

-지역별 통신요금 차등화 및 선택요금제 도입

전세계에 단일화된 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통신망인 INFONET(인포넷)서비스의 요금구조가 "지역별 차등요금제"로 변경되고 이용요금도 최고 47%까지 인하된다. INFONET서비스의 요금구조가 현행 단일요금체제에서 "아시아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분리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로 변경됨에 따라 공용포트의 경우 아시아 지역 47%, 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을 12.6%인하하고, 전용포트의 경우 아시아 지역은 42%인하, 기타지역은 0.2%인상하여 이를 금년 1월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조정된 요금구조에 의하면 공용포트 이용시 접속료는 현행 분당 155원의 단일요금에서 아시아 지역은 102원/분, 기타지역은 150원/분으로 인하하였고 전송료는 현행 1천 영문자당 145.5원에서 아시아 지역은 57원/1천 영문자, 기타지역은 113원/1천영문자로 조정되어 아시아 지역내 통신의 경우 최고 47%까지 인하되었다.

INFONET서비스는 ISC사가 한국, 일본, 프랑스 등 전세계 36개국에 해당국가의 주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INFONET교환장비를 설치하여 전세계 단일화된 통신망을 제공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로 가입, 개통, 교육, A/S 등 고객에 대한 일괄지원체제가 구축되어 있고, 일원화된 망관리로 통신망의 신뢰성 및 안전성이 뛰어나다.

### 데이콤 "천리안" 통해 제공되는 DB수가 1천개 넘어섰다.

데이콤(대표 申允植)의 종합 PC통신서비스인 "천리안"을 통해 제공되는 DB수가 1천개를 넘어섰다.

데이콤에 따르면 3월 현재 천리안이 제공하는 DB는 전자우편·동호회 등 PC통신분야 2백50여 개를 비롯해 뉴스·주문예약·증권·부동산 등 국내DB 4백48개와 해외DB 5백66개 등 총 1천14개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 88년 천리안의 상용서비스 이후 연평균 3백%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이들 DB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업체수도 92년 1백41개사에서 지난해 2백51개사로 78% 늘어난데 이어 현재 2백71개사에 이르고 있다.

데이콤은 이같은 DB수 증가와 함께 최근들어 재테크·취업·침단관련정보 등 점차 공익 및 전문DB 이용률이 증가하는 등 가입자들의 DB이용 추세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중에 DB이용현황을 보면 국내의 각종 소프트웨어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신세대자료방"과 증권전산이 제공하는 증권정보를 합쳐 전체 이용시간의 37.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콤은 이에 따라 오는 97년까지 1천5백여개의 DB를 구축하고 1백30만명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방침 아래 매년 매출액의 2~5%를 정보제공료 및 용역개발비로 IP에 제공할 계획이다.

### 그림으로 보는 "농업통계"

도표로 보는 농업통계 서비스, '수산업' 부문과 '외국농업통계'를 추가하였으며 일부 메뉴개편과 함께 새로운 내용의 농업통계를 3월17일부터 추가 서비스한다.

각종 농업통계를 도표와 함께 제공하는 '도표로 보는 농업통계'서비스이 새롭게 바뀐 모습을 선보인다.

1. 서비스명 : 도표로 보는 농업통계(GO GAFFIS) 천리안 TOP 메뉴 17번 '그림정보'의 1번 '뉴스/농업통계/날씨' 부문에서 21번 '도표로 보는 농업통계' 선택

2. 추가서비스 일자

- '94. 3. 17(목). 현재 서비스중

3. 추가서비스 내용

-수산업 통계, 외국농업 통계 추가  
-메뉴 개편

4. 제공기관 : (재) 농림수산물정보센터

### 인물정보! 더욱 많은 정보로 새롭게 단장!

우리나라 주요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인물정보에서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정계·재계·학계·법조인·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인물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5만 6천여명에 대한 인물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다.

1. 서비스명 : 인물정보(GO PEOPLE)

천리안 TOP 메뉴

12번 '기업/무역/세무/물가/인물'의 51번 '인물정보'선택

2. 추가서비스 일자

- '94. 3. 17(목) 현재 서비스중

3. 서비스 내용 : 각계각층의 인물정보 서비

스(약 5만 6천여명)

-정·관계 : 국회의원, 정치인, 4급 이상 공무원

-재 계 : 상장기업(3000개 기업) 임원급 이상

-학 계 : 대학 조교수 이상

-법 조 인 : 변호사, 판·검사

-언 론 인 : 국장급 이상(부장 일부 포함)

\*그외 주요 사회·경제·문화·예술 단체의 단체장 및 간부

4. 제공기관 : 중앙일보사

### “법보신문” 불교계 소식 / 행사 등 다양한 정보 제공

‘법보신문’을 천리안 ‘전문/해외뉴스’ 코너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법보신문사’에서 3월 15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법보신문서비스는 불교계의 소식과 함께 각종 불교 행사 안내 등 불교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제공한다.

1. 서비스명 : 법보신문(GO PUBPO)

천리안 TOP 메뉴 7번 ‘뉴스/날씨/스포츠’의 22번 ‘전문/해외뉴스’분야에서 8번 ‘법보신문’선택

3. 서비스 내용

-불교계 소식, 행사 안내

-불교 관련 기사 제공

-독자투고, 신앙상담

5. 제공기관 : 법보신문사

### 출원상표 최신정보, 상표정보 내용이 추가

상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표정보”에서는 출원상표 속보를 추가하여 서비스하고 있

다.

“상표정보”에서는 상표의 일반적인 정보, 출원 중인 상표에 대한 정보와 상표의 개념, 유사상표 대법원 판결례 등 각종 상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1. 서비스명 : 상표정보(GO TM) 천리안 TOP 메뉴 13번

‘과학/기술/규격/법률/상표’의 31번 ‘상표정보’선택

2. 추가 정보 내용 안내

-출원상표 속보 최신 정보 추가 서비스

3. 제공기관 : (주)인피니트 그룹

### 한국PC통신 (HiTEL)

#### 하이텔 소프트웨어 공모

한국PC통신은 정보통신관련 소프트웨어를 3월 11일부터 6월5일까지 하이텔이용자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아마추어 프로그래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좋은 소프트웨어를 발굴, 공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공모대상은 통신프로그램 및 하이텔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유틸리티등 하이텔관련 프로그램이다.

응모작은 하이텔의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해서만 접수하며 당선작은 6월20일 발표하는 동시에 하이텔 공개자료실을 통해 배포하게 된다.

대상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멀티미디어 486DX 컴퓨터와 오는 9월 열리는 동경 데이터베이스(DB)쇼 참관비용 일체가 제공된다.

### 하이텔, 요리DB 선보여 젊은층 호응

한국PC통신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Hi-TEL에서 새롭게 요리DB를 선보였다. “즐거운 요

리”라는 이름의 이 DB는 <들불출판사>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9백여가지의 요리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어 음식종류, 재료, 조리시간별, 요리명칭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즐거운 요리” 서비스는 다양한 음식이 소개되어 있어 요리를 많이 해보지 않은 젊은층에게 요리방법과 새로운 음식에 정보채널로 유용하게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월평균 4천명 정도 이용자가 찾는 “즐거운 요리”는 20~30대가 70%를 차지하는 PC통신인에게 매우 인기있는 서비스이다.

또 조리시간별로 음식을 조회할 수도 있어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부부는 요리에 10~30분 걸리는 “즐거운 요리”에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글을 게시할 수 있는 ‘나의 음식솜씨 자랑’ 코너가 있다.

하이텔에서 “즐거운 요리”정보를 이용하려면,

- 1) 하이텔 초기화면 → 4. 생활/문화 → 1. 가정/여성 → 1. 즐거운 요리 순으로 선택하거나
- 2) 하이텔의 모든 화면에서 go cook이라는 명령어를 주면된다.

### 내고향전설 ‘만화/동화’에서 서비스

문화정보에서 제공되던 내고향전설을 [만화/동화]에서도 제공하게 되었다.

그동안 문화정보 내에서만 서비스되던 내고향전설을 100회 돌파기념으로 만화/동화 코너에서도 볼 수 있도록 했다.

전국 8도에 흩어져 있던 우리의 고유전설을 방송작가 민병훈씨가 채록하여 MBC라디오에서 ‘전설따라 삼천리’로 인기리에 방송했는데, 이것을 그림정보 내고향전설로서 하이텔에서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도별로 내용을 모아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정서 함양 및 우리문화 사랑에 도움이 될 것이다.

- 1) 초기화면 → 4. 생활/문화 → 9. 바둑/오락 → 53. 내고향전설
- 2) 초기화면 → 4. 생활/문화 → 12. 문화/예술 → 4. 문화정보 → 11. 내고향전설
- 3) 어느화면에서나 “go legend”하면 된다.

### 하이텔 길라잡이 발매개시

하이텔의 이용을 도와줄 안내서 <하이텔길라잡이>가 나왔다. 하이텔길라잡이에는 처음 통신을 하는 사람을 위해 모뎀의 설치와 통신프로그램의 실행, 하이텔 명령어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화면과 함께 소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부가정보와 특수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되어 있으므로 하이텔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하이텔길라잡이의 가격은 1,500원이며 다음과 같이 구입할 수 있다. 온라인 주문을 하는 경우 우편요금 포함 1,850원이다.

- (1) 본사에서 직접구입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7-23 성도빌딩

전화 : 02-513-2200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하차 안세병원방향 약400m, 신사역하차 약600m

- (2) 하이텔정보이용권 판매처에서 직접 구입  
판매처는 아무 화면에서나 go notice한 뒤 공지사항 407번을 참조.

- (3) 온라인주문

초기화면 16.주문처리→3.도서→99.한국PC통신도서→3.주문의뢰를 선택하거나 또는 어떤 화면에서든지 go kptbook하신 뒤 3.주문의뢰를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주문의 경우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를 명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우편요금(350원)은 주문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즉시 발송되고 무통장입금의 경우 입금후 5일정도가 소요된다.

## 동아일보 새봄맞이 메뉴개편

동아일보(go dongailbo)가 새봄과 함께 메뉴를 개편하여 오늘 ('94년 3월 14일)부터 서비스된다.

이번 개편은 동아일보사의 신문제작 전산화(CTS)시스템 도입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현장에서 기사가 입력되자마자 하이텔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물론, 이제까지 입력의 한계때문에 제외되거나 요약 제공되어왔던 심층적인 해설과, 기획물등 모든 기사의 내용이 서비스되며, 검색이 용이하도록 기사분류를 체계화하고 속보, 기업소식, 기획/연재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했다.

특히 시시각각 변하는 사건의 상황을 초기화면에서 속보형태로 제공하며 국내 신문사로서는 처음으로 기사중요도를 표시함으로써 모니터 상에서도 신문을 보는 것처럼 그날의 주요한 뉴스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디알 통신판매 - S/W 및 H/W 판매

H/W, 개인용 및 사무용 S/W를 판매할 이디알 통신판매(go edr)가 홈쇼핑코너에 개점했다.

컴퓨터는 이제 우리 생활에 깊숙히 들어와 있으나, 아직도 그 주변기기 및 S/W는 직접 판매점에 나가지 않고는 쉽게 구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디알 통신판매는 유용한 유틸리티,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CD-ROM 드라이브, 멀티미디어보드 등 각종 컴퓨터에 관련된 상품들을 구비해 놓고 있다.

'이디알통신판매'는 특히 통신판매의 잇점을 십분활용,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하게 공급하므로 컴퓨터에 관심은 많으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못한 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다.

## 금성정보통신 <GINS>

### 건설정보 서비스개시, (주)대우와 함께 GINS가 건설정보를 제공

금성정보통신(주)에서는 대우와 손잡고 3월부터 공법건설기술도서, 해외공사표준시방서 등 총 14만건의 건설기술정보를 국내최초로 GINS를 통하여 서비스하게 됐다!

GINS에서 서비스될 내용은 건설자료, 건설도서, 건설기술동향, 해외공사표준시방서, 시공체크리스트 등이다.

건설자료는 각종 공법 건설현장 및 건적자료시방서 표준품셈 건설교육 및 세미나자료논문집이 포함되며, 건설도서는 각종의 건설관련 단행본 사전 매뉴얼등이며 건설동향은 건설정책, 수주내용 신기술 및 공법 법령등이 서비스 된다.

건축 토목 기계 전기등 각종 해외공사 표준시방서는 원문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 화상 구직정보 이용에 관한 공지

기업과 인재와의 만남을 추구하는 취업정보 전문회사 (주)월드맨파워가 제공하고 있는 GINS 취업정보(주메뉴:22번)의 화상구직정보가 3월2일부터 GINS회원 전원에게 개방된다.

취업정보의 화상구직정보(13번)를 선택하면 취업을 희망하는 각분야 전문인력의 상세한 프로필과 함께 구직희망자의 생생한 모습을 화상으로 검색할 수 있다.

기업에서 신규인력을 채용하거나 경력직을 채용할 경우 GINS취업정보의 화상구직정보를 이용하면 경비절감뿐만 아니라 신속한 사원채용을 통해 업무공백화를 최소화할 수 있어 기업의 인사관리업무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예전에 입찰정보나 세무정보, 법률정보에 가입하신 회원이 취업정보를 보고자 할때 기업 ID를 따로 확인하여 검색권한을 부여받던 번거로움을 없애고 GINS에 가입하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 에이텔 <POS-Serve>

### EasyNet 사용자교육을 POS-Serve 모든 회원에게 개방

지난 2월 1일부터 POS-Serve 회원 누구나 해외DB를 접속할 수 있게됨에 따라 EasyNet 사용자 교육을 개방, 3월부터 POS-Serve 모든 회원 누구나가 받을 수 있다. EasyNet 사용자 교육을 통하여 회원여러분이 필요한 해외DB를 보다 편리하고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다.

#### <3월의 EasyNet 사용자 교육 일정>

- ♣일시 : 3월16일 오후 2시
- ♣장소 : 송파구 신천동 대한제당빌딩9층 포스테이타 데모룸  
(지하철2호선 잠실역 하차, 교통회관 출구로 나와서 교통회관 방면으로 약 100m)
- ♣문의전화 : 528-0473

### 공개되는 <해외서비스 사용자포럼>과 니프티서브회지 우송서비스

지금까지 해외서비스 사용자 포럼(GO FOSU)은 해외서비스 회원분들을 지원하는 포럼으로 해

외서비스(CompuServe, EasyNet, NIFTY-Serve)회원내 한해 이용할 수 있는 비공개포럼이었다.

해외서비스 이용 증가추세에 따르고 더 내실있는 포럼운영을 위해서 일반회원개도 해외서비스 관련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3월 8일부터 공개하게 됐다.

<해외서비스 사용자 포럼> 개방과 함께 해외서비스 회원분들에 대한 지원을 다양하고 실속있게 추진중이며, 3월부터 NIFTY-Serve 회원들에게 NIFTY-Serve의 월회지인 'Online Today Japan'을 우송 서비스한다.

이 회지는 NIFTY-Serve의 회원중에서도 월 1500엔의 최저요금인 Executive Option을 선택한 회원들에게만 일본내에만 한정하여 우송되는 회지이다. 그러나 NIFTY-Serve회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에이텔(주)와 NIFTY-Serve사와의 협약에 의해 일정기간동안 서비스한다.

이외 현재 추진중인 해외서비스 회원지원계획으로는 CompuServe의 9600BPS접속, NIFTY-Serve의 국제회선료 인하 등이 있으며 해외에서의 포스서브 접속방안도 진행중에 있다. 또 가능한 한 상반기 이내에 해외서비스 회원들을 위한 가이드 제작, CompuServe Map 제작 등도 계획중이다.

### <안시연구모임> 동호회 개설안내

컴퓨터통신을 하면서 자신이 모니터 화면을 아름답게 구성하고 싶은 때가 있다. 리듬감넘치는 울동적인 화면이나 무비퍽쳐처럼 움직이는 선그림 등을 그려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때가 더러 있다. 이런 호기심과 충동을 가지고 계신 회원분들을 위한공간으로서 <안시연구모임>이 개설된다.

안시(ANSI)는 미국 국립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의 약자로 화면과 커서의 제어에 관한 코드이다. 이 코드는 컴퓨터와 통신 에뮬레이터에서 모두 지원을 해주는 국제 규격의 코드이다.

이런 안시코드를 이용해서 동호회의 로고나 각종 프로그램의 로고, 게임의 화면과 같은 그래픽의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예쁜 편지지에 편지를 쓰듯 통신상의 전자메일로도 안시코드를 써서 아주 예쁜 화면을 친구나 연인에게 보내실 수 있다.

안시동호회는 안시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나 전문가와 함께 안시에 관하여 서로 연구하고 알려주고 배우고자 하는 동호회이다. 안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지금 곧 "GO FANAI" 하면 새로이 태어난 안시동이 여러분을 맞을 것이다.

1. 포럼 개설일 : '94년 3월 8일(화)
2. 포럼 운영자 : 성만옥(ID:SOP00168)
3. 서비스 메뉴 : 5. FORUM → 6. 컴퓨터/통신 → 17. 안시연구모임
4. GO 명령어 : GO FANSI

### 아시아나 항공티켓을 집으로 직접 배달

아시아나 항공권 예약/종합여행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는 POS-Serve의 <아시아나항공> 정보가 좀 더 유용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추가한다.

추가되는 서비스는 PC통신으로 온라인 예약을 하신 후에 항공권 배달을 원하시면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원하는 곳에 배달해 주며 항공요금은 회원이 소지한 신용카드로 자동정산되는 서비스이다. GO ASIANA하면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바로 항공권을 받아볼 수 있다.

## 제시부

### [014XY 접속시] PC통신용 전화요금 할인 안내

3월 1일부터 PC통신(데이터통신)을 위한 전화요금이 30% 인하됐다.

데이터 통신(PC통신) 이용의 활성화로 정보화 사회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현재 180초(3분)당 30원인 시내전화요금을 통신망 식별번호 "014XY"를 이용하는 PC통신에 대해서 258초(4분18초)당 30원으로 30% 할인해 적용하게 된다.

또한 현재 30% 할인이 적용되고 있는 야간할인 시간대(21:00부터 다음날 08:00까지)에는 30% 할인이 추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야간할인 시간대에는 현행 258초(4분18초)당 30원에서 368초(6분8초)당 30원으로 총51%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 1. PC통신 서비스 이용 전화요금 할인 안내

-적용대상 번호 : 014XY

#### 2. PC 통신용 전화요금 할인율

- "014XY"를 이용할 경우 현행 3분당 30원인 전화요금을 4분 18초당 30원으로 30%할인

-야간 할인 시간대(21:00부터 다음날 08:00까지)에는 현행 4분 18초당 30원에서 6분8초당 30원으로 30% 추가 할인

### 정보통신협력국등 1국 4과 신설

그동안 우편검열을 담당해 오던 우전연구소를 폐지하는 한편 통신분야의 국제화실무를 전담하는 '정보통신협력국'을 신설하고 통신정책, 기술개발, 사업자관리기능을 대폭 조정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체신부는 2실4국23과에서 2실5국27과로 확대개편되고 직원은 4급 2명, 5급 4명, 7급 이하 50명등 모두 56명이 감축된다.

체신부가 지난 5일 총무처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우정연구소(서울 본소 및 4개분소, 지방 9개분소) 폐지에 따라 연구소직원 474명중 대부분을 우체국에 재배치, 법에 따른 검열기능을 담당토록하고 상당수를 감축키로 했다.

새로 신설되는 정보통신협력국은 정보통신사업의 개방화-국제화에 대비해 기존의 '통신협력단' 기능을 보강한 것으로 산하에 협력기획과, 국제기구과, 대외협력과 등 3개과를 두며 우정국에 집배-운송업무를 담당하는 운영과를 신설하게 된다.

이와 함께 통신정책실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국은 '정보통신진흥국'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정책실은 순수정책만 담당하고 사업자관리등의 집행기능은 정보통신진흥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기술개발관련업무를 그동안 분야별로 통신정책실(유선), 전파관리국(무선), 정보통신국(정보통신)으로 흩어져 있던 것도 일원화해 통신정책실 통신기술심의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실 통신정책심의관 밑에는 기획과, 총괄과, 고속정보망과등 3개과, 통신기술심의관 밑에는 기술기획과, 기술개발과, 기술기준과등 3개과, 정보통신진흥국은 기획과, 업무과, 데이터통신과등 3개과, 전파관리국은 기획과, 감리과, 방송과, 주파수과, 통신-방송위성과등 5개과로 개편된다.

## 올해 정보통신기술 4천5백79억 투자

국내 통신사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4천 5백79억원을 첨단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할 방침이다.

체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3천4백91억원을 정보통신연구개발에 투자한 데 이어 금년에는 이보다 30%가 늘어난 4천5백79억원을 투입, 정보통신기술의 조기 자립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체신부는 이같은 연구개발비를 정보통신진흥국금에서 5백억원을 지원하고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4천79억원으로 충당키로 했다.

사업자중에서는 한국통신이 매출액대비 6.1%인 3천2백33억원 한국이동통신이 9%인 5백53억원, 데이콤이 7%인 2백38억원 제2무선호출사업자들이 55억원을 각각 출연하게 된다.

연구개발비를 민간개발이 어려운 대형 및 기초, 기반기술개발에 우선적으로 쓰기로 했는데 개발분야로는 광대역 교환기술 및 10기가bps급 전송장치와 초고속 전송기술 등을 선정했다.

또 디지털이동통신 및 위성방성시스템기술과 멀티미디어워크스테이션, 고속병렬컴퓨터기술, 주문형반도체(ASIC), 고속소자 및 집적회로기술 등의 연구개발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년중 95년의 정보통신분야 연구개발방향 및 중점개발기술분야를 발굴키로 하고 오는 6월 연구개발 및 출연지침을 시달한 뒤 8월까지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를 받아 11월까지 95년도 연구개발과제를 심의, 확정할 계획이다.

## 정보산업 기술개발 지원 강화

오는 2001년까지 국내 정보통신시장이 연평균 27% 상당의 고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오는 10월까지 정보통신산업 중장기발전전략을 수립, 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체신부에 따르면 지난 92년 현재 5조3천억원 규모의 국내 통신시장은 2001년께 18조5천억원으로 연평균 14.9%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전화 등 기본통신시장은 연평균 13.5%의 성장률을 나타내는 반면 부가통신(VAN)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시장은 연평균 27.2%의 고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정보통신산업의 중장기발전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오는 4월중 관계전문가들로 실무전담반을 구성, 6월까지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중 최종 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체신부는 중장기발전전략을 우루과이라운드(UR)규범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제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립한다는 방침아래 정보통신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첨단기술지도 등 지원수단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팩시밀리 휴대전화기 등 수출유망정보통신기기의 품질 고도화를 지원하고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통신진흥기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중소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 1개 기업당 최대 10억원의 운용자금유자를 추천하고 기술개발비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예정이다.

## 정보통신 SW산업 적극 지원

체신부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돼 있는 국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컴퓨터 운용체계 등 기반기술은 국가기관 연구소에서, 응용SW기술은 민간기업에서 각각 개발하는등 이 분야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적극 꾀하기로 했다.

체신부가 마련한 “정보통신 SW산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ETRI(전자통신 연구소) 및 한국통신 소프트웨어연구소로 하여금 컴퓨터 운용 체계를 비롯해 DBMS(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

템), EDI(전자문서교환) 등 대형 기반기술을 전담시켜 이를 민간기업들에 기술이전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체신부는 또 올해 정보통신진흥기금중 1백25억원 규모의 재원을 정보통신 SW산업 육성자금으로 활용해 민간기업에서 개발하는 응용SW 기술 개발을 위한 장기저리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의, SW분야의 기술개발 및 상품화에 신기술 기업화나 리스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SW산업에 대한 제조업 수준의 금융 세제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체신부는 이밖에도 국내 SW산업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이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외주발주를 확대토록 하는 한편 SW 분야의 개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개 SW용 DB를 SW개발자 및 민간 기업 등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 공인전산감리사(가칭) 자격시험 없다

—“공인전산감리사” 광고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

최근 민간업체에서 '94년에 체신부에서 공인전산감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취업도 잘되고 고소득이 보장될 것이라는 허황된 내용을 굿모닝 팝스를 비롯한 각종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 FAX·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

이들 민간업체들은 많은 사람들을 교묘히 현혹하여 270,000원 상당의 시험교재 구입을 권하고 있어 선량한 다수인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해 올해안에 전산감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전산감리 수행주체의 자격에 대해서는 시험에 의해 국가에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공인전

산감리사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일정자격을 갖춘 법인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공인전산감리법인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공인전산감리법인은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유사 자격증이 있고 상당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무책임한 민간 시험교재 판매업자들의 허황된 광고에 현혹되어 시험교재를 구입하여 시험준비를 하게되면 금전적 손실과 함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초고속정보통신망 법정부추진위 구성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44조7천억원을 들여 건설할 초고속 정보통신망구축에 관한 정책 및 사업계획의 심의·조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법정부적 추진위원회를 올 상반기중 구성키로 했다.

또 제2이동전화사업자는 지난 2월 전경련이 구성한 단일컨소시엄에 참여할 외국기업 3-4개사가 오는 4월중 확정되면 4-5월중 허가신청공고 및 접수와 함께 심사기준등 심사절차를 마련한뒤 6월중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하기로 했다.

윤동운 체신부장관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이같이 보고하고 한국이동통신(주)의 민영화를 위한 주식매각도 지난 1월부터 3차에 걸친 입찰에서의 유찰분을 오는 6월까지 전량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윤장관은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 상반기중 추진위와 함께 체신부에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정보화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시 사업추진 및 세제지원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윤장관은 최근 한국통신 지하통신구

화재로 인한 대형통신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망과 주요전송로를 다원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 감사원

### 정보통신기금 관련 전자통신연구소 특감

대덕연구단지내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운용하고 있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대한 감사원의 대규모 특별 감사가 실시됐다.

전자통신연에 따르면 감사원은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13일동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을 맡고 있는 이 연구소 정보통신진흥기금 관리실을 대상으로 기금 운용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벌였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체신부 산하 전자통신연이 연구개발 성과를 기업에 이전한 뒤 받고 있는 기술료 등을 적립해 국내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 등에 연구비등으로 지원하고 있는 돈으로, 올해 기금 적립목표는 2천4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감사원의 이번 특별 감사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감사원은 7-10명의 감사관을 연구소에 파견, 그동안 이 연구소가 중소기업에 기금을 대출해준 관련 자료등을 중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특히 전자통신연에 대한 감사에 앞서 기금을 대출받은 중소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실사까지 끝낸 것으로 알려져 감사 결과에 따라 이 기금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보사부

### 벽지 주민 정보통신으로 원격진단

오는 7월부터 초고속 정보통신망(ISDN)이 벽지주민의 의료진단에 본격 활용된다.

보사부는 8일 전남 구례군과 경북 울진군 등 2곳의 보건의료원에 ISDN망을 설치하고 이를 각각 전남대부속병원과 경북대부속병원에 연결, 보건의료원을 찾아오는 벽지 환자의 상태를 대학병원 전문의료진이 멀리에서 진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대학병원등에 가지 않더라도 동네 보건의료원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돼 대도시에 나가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원격의료진단이 실시되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환자의 X-선 사진 등 기초검사자료를 해당 대학병원에 전송, 대학병원의 고급의료진이 보건의료원의 의료진과 함께 전송사진을 보면서 의견을 나누고 필요하면 환자에 대한 문진을 거쳐 그 자리에서 진단과 처방을 내리게 된다.

보사부는 체신부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계획과 연계, 보건의료원의 원격의료진단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고 올해 성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면 내년부터는 전국의 5개 농어촌 보건의료원으로 실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사부 관계자는 “농어촌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원격의료진단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한국통신은 ISDN망 설치 및 이용요금을 무료로 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국의 군단위 보건소중 관내에 종합병원이 없는 벽지와 오지의 16개소는 보건소를 병원형태의 보건의료원으로 전환, 지역주민의 진료편의를 도모해오고 있으나 시설 및 전문의 부족으로 까다로운 질병을 앓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보사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원격진단사업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

다.

## 공보처

### 국정신문정보 서비스

-천리안, 하이텔, 에이텔 등 통해 제공

공보처에서 발행하는 국정신문이 '94년 3월 7일부터 “국정신문”으로 제공된다.

주간 주요시책해설과 국무회의 요약, 주요 정부발표문 및 담화문, 주요시책 메모 및 법령해설, 국정에 관한 오보 및 과장보도 정정과 해명 기능수행, 정부 주요 통계자료 등의 내용을 실은 국정신문은 매주 월요일 주간으로 공보처 정부간행물제작소에서 발행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방향과 시책내용 등 국정정보를 정확한 해설과 자료로 정리해 공직자를 비롯한 각계 여론지도층 인사들이 대화 및 교육, 연구자료로 활용토록 하기위해 발간, 배포된 국정신문을 이제 일반인들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천리안, 하이텔, 에이텔 등에서 공공정보로 제공하게 된다.

## 국내일반

### 한국통신 사내연구소 통합

지금까지 통신망을 비롯해 선로·소프트웨어 등 분야별로 운영되어온 한국 통신의 사내 연구소가 “연구개발원”으로 통합되고 연구조직도 연구과제별로 추진되는 등 한국통신의 연구체제가 대폭 바뀐다.

한국통신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내 연구소 조직개편”을 확정하고 총69개의 프로젝트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원을 본격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대 연구 개발원 원장에는 전 한국통신 선로 기술 연구소장인 이용경 박사가 선임됐다.

이번에 확정된 연구소 조직개편에 따르면 한국통신 산하의 기존 연구 개발단을 비롯해 통신망 연구소·소프트웨어연구소·선로기술연구소·통신시스템개발센터·서울전자교환운용연구단 등 6개의 연구조직을 자동통역연구팀·차세대영상통신팀·신경망연구팀 등 총69개의 프로젝트팀으로 구성된 연구 개발원으로 통합한 것이다.

한국통신측은 이번에 구축한 “프로젝트팀제”란 현안이 되는 연구과제가 생기면 새로운팀을 구성하고 과제가 완료되면 이를 해산하는 조직으로 급속한 기술혁신과 연구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통신은 또 개별 프로젝트팀과는 별도로 연구개발원 직속기구로 전략기술 총괄팀을 두어 신규 연구테마를 선정하고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등 총괄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한편 한국통신은 이번 연구소 조직개편을 계기로 \*연구 결과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기술제휴 및 외부용역을 활용하는 등 연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연구소 관리체제도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정보화관련 부처장관회의-과학특보 신설 건의

정보화추진협의회(회장 정수창)는 정부 각 부처간에 분산-중복돼 있는 정보통신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관련 부처장관회의와 대통령 과학특별보좌관제를 신설할 것을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정보화추진협의회는 사회 각 부문의 정보화추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체신부가 지난 92년 정보문화센터를 통해 발족시킨 기구로 사회 각계의 지도급인사 및 여론선도계층인사 7백여명으로 구성된 여론수렴 및 정책건의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4일 체신부에 제출한 ‘정보화추진과 정보통신산업육성을 위한 대정부정책건의’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정책이 체신부, 상공, 과기처 등 각 부처에 분산돼 있어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관련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행정조직의 일원화와 각종 법령-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체신부의 ‘정보통신부’개편에 관한 대통령공약실천 ▲정보화관련 부서장관회의 신설 ▲정보화추진기본법 조기제정 ▲청와대 과학특별보좌관제 신설 등이 제시됐다.

협의회는 또 미래정보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기반이 될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계획의 조기추진과 함께 초고속망관련 응용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할 회사를 민-관 공동투자로 설립하고 지능형도시(인텔리전트시티)를 건설할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정보통신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현행 정보통신 관련 기술자격제도를 개선하고 정보통신 관련학과 및 특수대학설립 확대, 대학원 중심 교육체제전환, 전문대정원조정등을 건의했다.

## 국제음반정보 각종 음반관련 DB 본격 구축 계획

국제음반정보(대표 홍승면)는 각종 음반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본격 구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국제음반정보는 현재 국내 3대 PC통신사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각종 음반 정보를 활용해 작곡가별·음악장르별·연출가별로 곡목과 음악사 등에 관한 각종 음반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호스트를 구입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한편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음반정보를 GINS망을 통해서도 공

개할 방침이다.

### 한국유통정보 비디오 거래시스템 구축

비디오 관련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재고품을 상호 거래할 수 있는 비디오 거래시스템이 구축된다.

한국유통정보(대표 차인근)는 무질서한 국내 비디오 유통체계를 개선 한다는 방침 아래 전국 주요 비디오 도매상과 비디오 대여점을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주요 프로그램 제작업체의 각종 비디오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비디오 거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한국 유통정보는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3억여원의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을 지원받아 관련DB 구축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지난해말 호스트(시퀀트 2000)를 도입, 설치했다.

한국유통정보는 우선 오는 5월부터 서울·부산·청주·포항·울산·마산·충주 등 전국 7개 도시에 중간도매상과 이들 업체와 거래하는 1만여개의 비디오 대여점을 연결해 시범서비스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시범서비스에 앞서 한국통신의 하이넷-P에 접속해 전국적인 통신망을 확보하고 선경·대우 등 프로그램 공급업자와 정보제공 계약을 체결해 비디오 신상품 등 관련DB를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초에는 비디오 거래시스템을 전국의 주요 도시로 확대하고 가입 비디오 대여점을 3만여개로 늘리는 한편 비디오사, 국내 영화정보, 해외비디오 등 관련 DB를 추가로 보강해나갈 방침이다.

비디오 거래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국내 비디오 도매점은 직관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메이저사들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소매점은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원활한 재고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해외물류 DB본격 구축

국내외 각 해운회사 선박의 입출항 예정일과 해운운임 현황 등을 서비스하는 종합적인 해운물류DB가 본격 구축된다.

12일 코리아쉬핑가제트(주)는 국내 해운 및 무역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외의 각종 종합 해운DB를 구축하는 한편 전국적인 통신망을 확보해 이를 온라인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를 위해 지난 92년부터 본격 작업에 착수, 지난해 말까지 국내 각 해운 업체 현황, 입출항 예정일, 선박운항스케줄, 항구현황 등에 관한 운송종합DB 구축을 완료하고 호스트 컴퓨터를 도입, 설치했다.

이어 오는 4월까지 해사유관단체·해운물류용어·해사인명록·해운뉴스·운임 및 주요 원자재의 선물거래 현황 등의 운송DB를 추가 구축키로 하고 7월에는 DNS망을 확보해 무역 및 해운업체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코리아쉬핑 가제트는 95년에는 국내이용자들이 각종 해외 운송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 선복수요·공급, 용선계약, 선박현황 등 해운DB전문 업체와 게이트웨이 방식에 의한 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이와 관련, 미국Trade-Info사와 Dri사, 영국의 Lloyds사, Ocean Shipping Consultants사 등 우수한 해외운송DB전문업체와 관련계약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 DB구축이 완료되면 그동안 각 무역업체와 해운 업체들이 상품 수출입을 위해 개별로 접촉하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정보 검색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통신망 전국 연결

앞으로 국내 기업체는 경제부처에서 발표하는 정책자료 등 각종 경제정보를 지역 상공회의를 통해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지역상공회의소를 통해 7만여 회원사들에게 각종 산업 및 정부발표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침 아래 전국 54개 지역상공회의소를 연결하는 정보통신망(CCI-NET)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 DNS망을 임차해 전국적인 통신망을 확보하는 한편 3월현재까지 기존의 VAX 기종의 호스트를 이용해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40여개의 지역상공회의소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했다.

또 최근 국민경제연구소와 IP제공협약을 체결, 각 경제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발표하는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산하기관인 공업입지 정보센터에서 확보하고 있는 각종 공업입지정보를 DB화해 4월부터 CCI-NET를 통해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말까지 동해·삼척 등 13개 지역 상공회의소를 추가로 통신망에 접속해 전국 54개 지역을 연결하는 명실상부한 CCI-NET구축을 완료하고 기업체 총람, 각종 수출입 거래알선, 상공회의소 사업 안내 등의 DB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 CCI-NET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는 96년에는 포트수를 확보하기위해 별도의 호스트를 추가로 도입하고 상공회의소 회원들에게 별도의 ID를 발급하기로 했다.

CCI-NET구축이 완료되면 상공회의소 회원업체들은 그동안 정부정책자료실 등에서 직접 자료를 찾아보는 불편을 해소하고 각 지역상공회의소

를 통해 간단하게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 SDS "정보기술교류회" 발족

삼성데이터 시스템(대표 남궁석)은 최근 신기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사내연구모임인 정보기술교류회를 발족했다. 기술교류회는 SMSI, 정보통신 등 부문별 정보기술 접근방법을 이해하고 각기 개발하고 있는 신기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요소기술로 등장하는 멀티미디어·DBMS·클라이언트-서버·네트워크·정보기획 등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이사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이사장 방상훈)는 3월 3일 오전 코리어나호텔에서 제2회 정기 이사회를 갖고 올해부터 매년 2백억원씩 97년까지 총 8백억원이 투자되는 공공DB개발 및 보급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또 중앙일보 사장과 한국경제신문사 사장, 김근수 한국PC통신 대표이사, 안병훈 조선일보사 전무를 새 이사로 선임했다.

한편 한국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회(회장 방상훈)도 이날 오후 2시 제14차 이사회 및 제3회 정기총회를 잇달아 열고 박무익(한국광갤럽조사연구소 소장), 박성현(한국출판정보통신 사장), 황선용(한국광고데이터 사장)를 새 이사로 선임했다.

## 한국엠제이엘 조직개편

한국엠제이엘(주)은 올 1월초 한국투자신탁빌딩 19층으로 이전한이후 대대적인 맨파워 보강작업을 진행, 업계의 베테랑급 인원을 대거 영입하고 조직을 개편하였다.